

신구약중간사

Intertestamental Period

Jack Burch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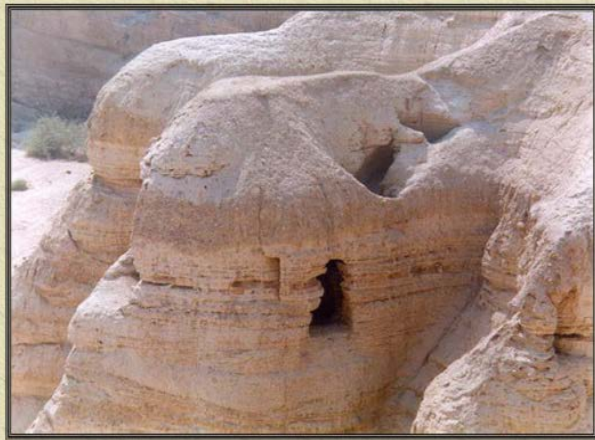
BCC 譯

본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시청 가능한 BCC 특강 원고입니다.

www.bible.kr/sp



신구약중간사
INTERTESTAMENTAL
PERIOD(2)



Qumran Cave

신구약중간사 (1)

Intertestamental Period

(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한글자막 첨부된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은 후 신약성경을 보면 구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웅장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회당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고 로마관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 상황을 보고 그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 합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신약의 환경조성에 직접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왕국으로 시작한 구약 배경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구약중간사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장차 세워질 주님의 교회에 당시 사회적 환경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예로 들면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일왕국의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의 통치 후에 왕국이 분열되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생깁니다. 북쪽에 위치한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이라 하고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 부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구약을 읽

어보면 정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신약시대에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나라 역사를 통틀어 훌륭한 왕을 들라고 하면 겨우 예후 왕 한 사람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처럼 주님이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맙니다. 앗수르 제국이 일어나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잡혀간 사람들이 앗수르 포로입니다. 앗수르는 히브리인들을 잡아다가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충성심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밖의 외국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후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을 고려하게 될 때 아내는 돌아오고 싶어도 남편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간 때가 주전 722년 이었습니다. 살만에셀 5세가 주전 722년 당시 앗수르 왕이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 북방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살만에셀은 죽임을 당했거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성이 완전히 점령될 당시 그가 더 이상 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르곤 2세는 이사야에서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딱 한번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고고학적 발굴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때 성경에 딱 한번

나오는 이 왕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사르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르곤은 앗수르 제국의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분열왕국 시기에 남방 유다왕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왕국이 있었습니다. 유다왕국시대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때 앗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 성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라기스를 무너뜨린 후 예루살렘을 점령할 만만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앗수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산헤립 군대에 큰 전염병이 돌아 결국 앗수르 군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 프리즘(점토판) 기록을 보면 산헤립 왕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는 "나에게 있어 유다는 새장에 갇힌 새 같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앗수르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자주색 지역을 보십시오.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앗수르는 대단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사람들도 더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방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에 앗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주전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앗수르 수도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이로써 앗수르 제국은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야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위대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옛 이스타문의 폐허입니다. 바벨론은 웅장한 성을 자랑했습니다. 아마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통해 그것

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가 얼마나 강하고 부유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진에서 이스타 문의 폐허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저 뒤 이스타 문 뒤편에 동물상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것은 화가가 상상해 그린 이스타 문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문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타 문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 앞에서 많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베를린에 이스타 문을 본뜬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타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데 자주색, 청색 등 여러 무늬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치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물을 벽돌 벽에 새겼습니다. 이 동물들도 여러 무늬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공중정원도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에 대한 역사 기록은 많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 가운데는 바벨론에 그런 정원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역사 기록을 근거로 여러 화가들이 공중정원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지만 화가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 바벨론의 한 복판에 커다란 사자상이 있습니다. 이 사자상이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없지만 바벨론 중심지에 이 상이 있습니다.

18-19세기의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 시대의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포로에 관한 중요한 기록도 거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엘레판틴 파피루스에도 이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다를 위협할 때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납치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하류의 작은 섬에 정착

했는데 그 섬을 엘레판틴 섬이라 부릅니다. (코끼리와 상아를 유통한 데서 이 지명이 유래됨)

그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섬으로 피신해 건물
을 지은 것과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같지는
않았지만 엘레판틴 섬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
소로 기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니푸르 점토판 기록도 있습니다. 1948-1958년 사이에 3-4 만 개의 췌기
문자 점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벨론 창조설화가 기록된 점토판도 있습
니다. 이것은 바벨론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고대사와 바벨론 포
로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66년간 존속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벨론 동부
에 살았던 페르시아(바사)인들이 북부로 진출한 후 바벨론으로 내려와 문제를 일으키
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강의 흐름을 약간 틀었습니다. 당시 부왕을 이어
왕이 된 벨사살이 밤중에 연회를 베풀고 있었는데 홀연히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을 방법이 없어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쓴 글을 읽
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했습니다. "벽에 쓴 글은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미 세워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인들
이 밤에 바벨론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 정부의 실
정에 실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페르시아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바벨론을 주전 539년경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나라 정복을 시

작했습니다. 페르시아(바사)의 포로정책은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자기 나라로 잡아가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정복지에 남겨둔 사람들로부터는 세금을 받아 바벨론성 건축에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는 포로들을 본국에 돌려보내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한 후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대단히 야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오늘날 터키까지 넓혔습니다. 주변 전 지역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할 당시의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 원주통은 영국 런던 박물관에 있는데 고레스왕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그가 한 일과 제국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로 고레스는 위로는 지중해까지 아래로는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다리오는 퍼세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이 성은 주전 522년에 다리오가 건설했지만 불행한 일이 그 성에 덮였습니다. 알렉산더대왕이 일어나 주전 331년 이 웅장한 성 퍼세폴리스를 무너뜨렸습니다. 퍼세폴리스의 폐허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 옆에 놓인 거대한 수호 사자상과 궁궐을 지키고 있는 동물상을 보신다면 퍼세폴리스 궁궐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인들 덕분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귀환은 주전 약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귀환을 이끈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데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귀환한 후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파괴한 그곳의 성전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사실 이 둘은 한동안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매우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회복시기에 느헤미아가 돌아와서 사람을 모아 성벽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조직해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본토에 그대로 남게 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앗수르 제국이 보낸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했는데 이들을 혼혈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북부지방인 사마리아에 정착했는데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인구가 많았음을 봅니다.

포로기 이후의 유다는 포로 이전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통해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학대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포로기에 힘들고 불행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후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율법연구에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와 같은 열심은 율법에 대한 관점에 따라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은 성전처럼 희생을 드리는 곳은 아니지만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헌신의 장소이었

으며 대부분의 회당은 학교 기능이 있어 자녀를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친구약중간기에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엘레판틴 이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레판틴 이민자들은 예루살렘에 매우 충성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접촉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그 이전의 페르시아 제국이 대제사장들을 정치 지도자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레판틴 이민자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엘레판틴 파스루스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교도 관습을 받아들여 예배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즈음 주전 약 382년에 그리스 출신 필립이 있었습니다. 그를 마케도니아의 필립이라고 하는데 그가 후에 위대한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해협 저편에 위치한 페르시아인이 그리스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협을 사이에 둔 가까운 터키 지역까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필립은 도시국가 형태의 그리스를 만듭니다. 한 도시만 제외하고 도시국가 형태를 조직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헬레스폰트를 건너 페르시아인들을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케도니아의 필립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권력은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신구약중간사 (2)

Intertestamental Period

(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한글자막 첨부된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부에서 구약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신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신약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대체된 것을 보았는데 이 강력한 제국은 터키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인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필립이 일어나 페르시아 제국에 맞섰습니다.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을 보았는데 그 위협이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일종의 동맹으로 만들고 연합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전사였지만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역사에 등장해 그의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일을 시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용맹스러운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또, 군사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실로 그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전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결성한 연합국을 정비하고 강력한 연합국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소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후퇴했고 이집트에서도 후퇴했습니다. 이리하여 결국 알렉산더는 터키, 이집트,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중심지까지 점령할 때 그는 인도까지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그의 제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 되어 한동안 고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군인들은 알렉산더에게 인도를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떠나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36세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리스인들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죽었지만 그리스 문화는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어디서든 그리스어가 통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신학언어인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는 사상을 표현하기에 좋은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제국의 큰 영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은 또 다른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은 지혜와 지식과 교육을 대단히 강조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 문화가 미친 큰 영향이 교육입니다. 그리스 김나지움을 예로 들면 이것은 운동경기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학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스 교육의 영향은 과소평가 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훌륭한 장군이기는 했지만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지도자가 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이 분할했습니다.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와 리비아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습니다. 셀레쿠스 장군은 소아시아, 시리아,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한 셈입니다. 안티고노스 장군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차지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신약성경 배경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면 그리스 제국의 영토가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제국이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그곳은 셀레쿠스가 다스린 영토입니다. 왼쪽 위 오렌지색과 황금색 지역은 안티고노스에게 분할된 영토입니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가장 넓은 지역은 셀레쿠스에게 분할된 영토입니다.

셀레쿠스는 중요한 정책을 편 사람인데 그 정책이 유대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시리아를 그가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는데 팔레스타인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긴 했지만 북쪽 셀레쿠스와 남쪽 프톨레미 사이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영토의 결속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완충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셀레쿠스와 남쪽 프톨레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등거리 외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셀레쿠스와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대단히 이상한 민족이었습니다. 여타 모든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만 믿는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배타적이고 다른 이방민족과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분리주의자들로 여겼습니다.

또,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앗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를 거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화 되어 갔습니다. 그리스인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는 정통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관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다른 관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셀레쿠스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북쪽 셀레쿠스와 남쪽 프톨레미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완충국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리아의 지도자 가운데 안티오쿠스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셀레쿠스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후에 그는 살해당하고 그의 형제가 그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안티오쿠스 4세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신의 현시(現示)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신과 아주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여기 그의 모습을 새긴 동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세속신의 반열에 든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이 동전의 한 면에는 제우스신이 있고 다른 면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래 이집트의 프톨레미와 시리아의 셀레쿠스는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시리아가 세력을 확장하면 시리아에 붙고 이집트 통치자(프톨레미)가 강하면 거기 붙자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과 나라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완충국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충성심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잃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주변 나라의 이교도 영향이 속수무책으로 들어와 점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열된 충성심은 후에 큰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종교 분파가 생깁니다. 유대교의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전쟁 때문에 생긴 분파가 있고 그 분파가 전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의 헬라화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새 구약성경 발행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리스어를 배우고 말하게 된 점을 주목하십시오

오, 그 가운데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치려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 정착민과 그리스 정착민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번역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 번역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번역서가 70인에 의해 70일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구약성경 셉투아진트판을 70인역(LXX)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셉투아진트판 파피루스 조각들인데 연대가 주전 50년부터 주후 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100여 년 사이의 어느 시기일 것입니다.

바로 이 즈음 주전 167년에 로마라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한동안 로마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점차 세력이 커지고 군대도 강해지자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이집트로 쳐들어 갈 때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프톨레미가 있었고 위쪽으로는 시리아에는 안티오크스가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와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주전 167년 안티오크스가 이집트로 내려가 쳐들어갔습니다.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당시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을 통과했는데 뜻하지 않은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미 거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거친 적병이었습니다. 로마 장교 중 한 명이 칼을 빼 들어 안티오크스 주변에 원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군사를 당신 나라로 철수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원에서 빠져 나오지 마시오." 이 전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일이 이집트에서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안티오크스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물러가 온

갖 파괴를 저지르고 온갖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전 제단에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의식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조상의 전통과 유대 정통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유다 막카비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유다 막카비는 이 모든 험악한 일들이 자기 나라와 백성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하스모니안 가문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북쪽 작은 소읍 출신으로 거기서 가문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시리아 장군이 그곳 작은 마을 모딘에 찾아와 자기네 신에게 희생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 신을 의미하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 가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맛다디아인데 그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젊은이가 그 이교도의 희생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맛다디아가 격분한 나머지 그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관원도 죽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산 위에서 살면서 유다 막카비의 지도아래 항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하스모니안 가문이 그곳에서 행한 일들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막카비는 예루살렘 재탈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를테면 "치고 빠지는" 군대였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게릴라병처럼 전투를 했습니다. 적이 있는 곳으로 접근해 급습을 한 후에는 다시 산 위로 달아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가 예루살렘 성의 일부를 탈환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로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한 전투에서 전사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적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끔직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는 성전을 정화하고 재 봉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독립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민족들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입니다. 성전을 재 봉헌한 것은 커다란 행사였습니다. 그 일이 12월에 있었는데 성전을 재 봉헌한 행사를 기념하는 날을 하누카 축제(수전절) 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명절을 크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죽은 후 그의 두 형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둘의 이름이 요나단과 시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약한 지도자였으며 시몬은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인들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종교와 정치 지도자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높은 지위를 가진 종교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등 전 세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단순히 종교지도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할이 중첩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안은 물론 정치적인 사안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대다수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유대인 가운데 종교분파가 생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준수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율법 해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해석이 자신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해 그 전통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통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좋은 것이었고 할아버지, 그 위 조상들에게 좋았다면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좋을 것이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율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이다 했습니다. 조상들이 한 일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종교, 정치, 성전을 하나로 묶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 제사장들은 유대인 가운데 일반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류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조상들이 했던 전통대로 현재를 살 수는 없다. 현대 사회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틈이 생기고 분파가 나타났습니다.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통을 따르자고 했고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약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로마 저술가 등이 언급했는데 이들을 옛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분파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들을 옛세네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로마 저술가들의 기록 덕분에 학자들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옛세네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세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소년이 고고학에서 발굴하지 못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14세 소년이 사해근처에서 염소를 돌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길 잃은 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느 소년처럼 그도 돌을 들어 표적에 던지곤 했던 모양입니다. 소년이 절벽 위에 있는 동굴을 보고 돌을 던졌는데 거기서 돌을 들어 던지자 동굴에 정확히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뭔가를 깨뜨렸습니다.

소년이 친구를 불러 가족 끈을 만들어 절벽을 올라 동굴에 들어가 보니 돌에 맞아 깨진 진흙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두루마리가 값어치가 있을 거라 생각해 예루살렘 골동품 가게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저기 팔려 다니다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광고가 실렸습니다.

마침내 학자들이 이것을 얻어 읽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정말 진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의 연대를 살펴보니 1세기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그 후 사해근처의 다른 동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곳 동굴들에서 더 많은 두루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발굴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주거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로마군의 재외기지일거라 생각하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발굴한 폐허를 살펴보니 그 폐허는 옛날 옛세네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해사본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쿰란공동체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사해사본이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쿰란 동굴이라 부릅니다.

쿰란공동체는 율법을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옛세네파의 특징 중 우선하는 것이 금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는데 수도사들은 아니었지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수 없고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혼자라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도 행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공동체의 폐허를 발굴해 고대 세례 탕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와 같은 발굴을 통해 고대 옛세네 공동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두루마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훈육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법과 규율이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옛세네인들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들 가운데는 하박국 주석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시편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편이 아니라 감사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또 빛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사해 사본에서는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모든 책들의 조각들이 다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본은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일부분의 사본을 통해 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종교적 분파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배경의 특징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사해사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구약성경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약성경 이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에 대해 언급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유대교 분파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해사본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것도 알려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의 쓰임새를 예로 들면 사해사본이 없었다면 특정 단어가 그런 식으로 반복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사야 사본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의 폐허를 발굴할 때 약 1200 개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옛세네인들은 대단히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옛세네인들이 지켰던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언급한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둘 혹은 셋의 서로 다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제사장적 메시아와 가르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또, 선지자적 메시아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설전을 벌인 중요한 배경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회당,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전통 같은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일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중간사 (3)

Intertestamental Period

(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한글자막 첨부된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고 난 후 신약을 펼치면 구약과는 다른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미 1,2부에 걸쳐 구약의 환경과 신약 환경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에는 친숙하게 나타나는 종교적 분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분파를 뜻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각 분파대로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르고 또, 각자 영향력의 범위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파 가운데 가장 컸으며, 사두개인은 배타적인 귀족계급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직을 맡은 반면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두개인부터 보겠습니다. 이들은 전통 신앙에 매이지 않으려고 나타났습니다. 동시대에 적합한 종교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큰 경외심을 갖고 있었지만 구약의 다른 책들은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지혜문학서와 예언서들을 성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가 앞으로 진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타난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이 그들을 매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율법을 매우 굳게 믿었으나 구약의 지혜문학서와 선지자들의 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다수 유대인과는 기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타적 귀족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소위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독점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사두개인 신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구약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율법서)만 믿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의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기간 동안 그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람은 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인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크게 존중했으며 구약의 모든 책을 존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대교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자라고 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 조상들이 어떻게 법을 지켰는지를 모르고 있다. 자녀들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듯 바리새인은 엄격한 전통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만큼 모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의 유래는 정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정확히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극진히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구약전체를 믿었으며 구약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사두개인의 그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고수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의 많은 부분을 전통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그 전통은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매우 강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중요한 종교인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납니다.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로마인들이 이미 이집트에 들

어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프톨레미와 시리아의 셀레쿠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주전 190년 로마는 큰 세력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전 49년-44년 율리어스 시저가 있었고 주전 27년-주후 14년 아우구스투스가 있는데 그는 예수의 탄생 당시 황제였습니다. 헤롯대왕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예수 탄생 당시 유대 왕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인 유대의 분봉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주전 40년에서 주전 4년까지 치리 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잔인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온갖 것들을 건축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게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그는 잔인한 건축가였지만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전에는 그의 인장과 그의 어귀가 새겨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웅장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정부 건물들도 지었습니다. 여리고에는 그의 궁전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큰 노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로마가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과 질서를 기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강하고 사람들이 거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시대에는 세상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로마가 행한 또 다른 일은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은 아직도 더러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일치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도 로마가 당시 세계에 끼친 영향입니다.

그리고 우편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술 면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신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국 어디서든 이와 같은 우편제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1세기 유대인들의 기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마치기 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의회인 산헤드린을 들 수 있습니다. 7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이 예수를 정죄한 후 로마에 넘겨주었습니다.

둘째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헌신과 학습과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면 어느 도시든지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대부분 학교가 부속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유대 자녀들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또 다른 현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제국에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든 한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배척했지만 한 하나님만을 믿은 그 사실이 다가오는 그리스도교의 길을 닦아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또한 유대인에게 중요했습니다. 장로들과 조상들이 율법을 지킨 방식으로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있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유대교 전반에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람어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언어인데 종종 히브리어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아람어는 아마도 예수께서 쓰신 언어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분리주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분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급진적이었지만 그들의 율법관, 신관, 미래관, 영생에 대한 관점은 분파마다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편 119편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신구약중간사를 더 알면 알수록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우리가 성경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